

사설

사찰땅 강제수용 불허 의미

헌법재판소는 1월 30일, 대한주택공사가 부산 선암사 경내지를 강제로 수용한 것에 대해 선암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공용 수용으로 인한 전통사찰 경내지 등의 소유권 변동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현재의 결정은 주택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을 위하여 사찰 경내지를 공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문화관광부장관이 결정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결정에서 전통사찰을 보존하는 것은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고 이는 국가의 헌법상의 의무라고 밝히고, 전통사찰의 경내지를 공공수입과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도 그 판단 여부를 주지가 처분하는 것과 동일하게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 절차를 밟게 한 것은 매우 타당한 판단이다. 스님들이 수행하며 많은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는 전통사찰은 단순히 건물이나, 탑 등의 일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내지와 주변 경관까지 보호될 때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 신라시대 창건된 선암사와 같이 역사가 오래된 사찰 옆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때 수행환경의 파괴와 경관의 아름다움이 사라질 것이며 문화재의 보존에도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불교계는 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보완하고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의무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합당한 정책 수립과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기대되는 청년 포교 방안

청년 불자의 수적 감소가 한국불교의 미래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지적의 차이를 넘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강요도 높은 요구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도 입으로 우려하고 마음으로 걱정할 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청년 불교의 현실을 바라보기만 했었다.

청년 불교의 핵심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와 대한불교청년회(대불청)가 전방위적인 포교활동을 통한 조직 확대라는 다각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두 단체가 단단하게 막막고 내놓은 인들은 불교계에 전란한 봄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대불련의 경우 신입생이 들어오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한 달을 학내포교 전진대회 기간으로 선포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

요한 일을 자심한 셈이다. 대학 불학기의 주인공은 신입생들이다. 신입생들은 이 시기에 각자의 개성과 인생관에 따라 동아리 활동을 선택하게 되므로 포교에 있어서도 적기다.

대불청 역시 그간 눈길을 주지 못했던 청소년들과의 유대 강화가 돋보인다. 미래의 회원인 청소년 불자들과 일찌감치 끈끈한 정을 맺는 것은 회원의 고령화와 활동의 신선도 팽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대불련과 대불청이 내놓은 다양한 포교 방안들은 그들의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승승장구하여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도록 각 종단과 신도단체 등 '어른'들의 측면 지원이 있어야겠다. 물론 대불련과 대불청도 지나친 의욕보다는 세심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포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터넷 1주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인쇄인 : 김규석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호-3379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대외협력부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110-170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외국인수행사 의식·예법 쉽게 배운다

조계종 교육원 행해예경집·초발심자경문 이달 발간

앞으로는 외국인 수행자들도 예법과 의식, 초발심자경문을 쉽게 배울 수 있게 됐다.

조계종 교육원은 이달 안으로 외국인 수행자들을 위한 <행해예경집>과 <초발심자경문>을 출간한다. 각 150여 쪽 분량의 두 책은 한국불교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 수행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불교의식 등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내국인 불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수행자를 위한 의

전통용어·로마자·내용 영문 해설 쉽게 옮긴 '화엄경현담' '주해집' 도

식 및 예법과 <초발심자경문>이 발간되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해예경집>은 행해, 위의 소인, 율력, 발우공양 등 사찰 생활에 필요한 각종예법과 삼귀의, 사홍서원, 도량석, 조석예법, 각 단예법, 공양의식, 목탁과 요령 사용법 등 예식을 손모양, 발모

양, 자세 등의 그림과 함께 쉽고도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다.

특히, 각 의식과 예법의 전통 용어를 한글 및 로마자 표기와 함께 영자식 풀이를 해놓고, 그 예법과 의식을 행하는 이유를 설명해 놓음으로써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예를 들면, 발우공양의 경우 'The bal woo gong yang(발우공양)'으로 표기하고, 그 아래 'buddhist meal with traditional bowls'(전통그릇으로 하는 불교도들의 식사)로 영어식 풀이를 달아놓았으며, 발우를 놓는 방법에서부터 공양 예법까지 차례차례 그림과 함께 설명해 놓았다.

<초발심자경문>은 미국 UCLA 로버트 버스웰 교수가 영리한 '계초심학입문', 연등국제선원장 원명스님이 영리한 '발

심수행장', 금강선원의 외국인 수행자인 청고스님이 영리한 '자경문'과 '선원규범교본'이 함께 실려 있다. 구성은, 책을 펼칠 경우 왼쪽 편에는 영리한 내용이, 오른쪽 편에는 한글과 한문으로 돼 있어 한글과 한문을 함께 익힐 수 있도록 했다.

교육원 불학연구소는 이 두 책을 국내외 외국인 행자와 수행자는 물론 외국인 한국 사찰과 외국 대학 및 도서관에도 배포해 한국 불교의 예법과 의식을 홍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원은 80권 화엄경을 압축해 이를 알기 쉽게 한글로 번역한 <화엄경 현담>상·하 권과, 그동안 나온 화엄경 현담 주해서를 쉽게 번역한 <주해집>상·하 권 등 네 권(2000여 쪽 분량)도 한 질로 엮어 이달 중 출간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연등축제 거리행사 참여 사찰·신행·예술단체 모집

조계종 불족위원회가 불기 2547년 부처님 오신날인 5월4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열리는 연등축제 거리행사 '불교문화마당'에 참가할 사찰 및 신행·예술단체를 모집한다.

참여 프로그램은 놀이마당(각종 공연, 전통문화마당(만들기, 꾸미기 등), 나눔마당(컵등 제작), NGO, 국제불교마당(불교국가별 부스 운영), 먹거리 살

거리(사찰음식 판매 등)이며, 3월1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불족위원회는 또 불교문화촌 소재로 한 공연 및 전시, 불교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각종 공모전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비의 손길 행사를 준비하는 단체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접수는 24일부터 3월7일까지다. (02)725-6641

한명우 기자

국내외 불교여성학 현황조사

불교여성개발원 연구성과 비교검토...월말께 보고서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자)이 국내외 불교여성학의 연구 성과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내외 불교여성학 개황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불교여성학을 공부하는 연구모임 '담마디나(담장 세등 스님)'가 맡아 진행했으며, 조사결과

는 이달 말 보고서로 발간된다.

세등 스님을 비롯 조순미·정미숙 등 국내 강사와 이경순 선우도량 간사, 이와 불교여성개발원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담마디나는 지난해 12월 첫 모임을 가진데 이어 3개월 동안 불교여성학관련 연구논문과 서적의 목록을 조사했으며 이를 '고', '집', '벌', '도'를 주제로 정리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외 불교여성학 연구 성과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불교여성학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불교여성학

을 공부하는 국내 학자들에게 자료 제공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이와 사무국장은 "국내 불교여성학은 박사학위를 받은 전공자가 1명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하다"며 "앞으로 이번 보고서에 실린 논문과 책의 주요 요지를 담은 등 계속적인 보완작업을 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보고서 100여 부를 전국 강원과 학교, 언론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한다. (02)722-2101

여수령 기자

"신명나는 불교·갈채받는 종단으로"

종하스님 6일 총무원장후보 추대식 법장스님은 지난 달 27일 가져

종하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추대식이 6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성오(범어사) 세민(해인사) 지성(동화사) 마근(신흥사) 명섭(화엄사) 원정(쌍계사) 용주(관음사) 지홍(조계사) 스님 등 8개 교구본사 주지와 원택, 영담, 광조, 종훈, 학담, 진만 등 중앙종회의원, 종하스님 선거대책위원장인 홍교스님(대각사 주지) 등을 포함해 모두 150여명이 참석했다.

종하스님은 후보추대 수락사에서 "21세기 변화의 시대에 조계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며 "총무원장이 되면 종단에 오랜 기간 몸담았던 경험을 토대로 생동감 넘치고 신명나는 불교, 사회로부터 갈채받는 종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종하스님과 함께 후보로 나선 법장스님은 지난 1월 27일 추대식을 가진 바 있다. 한명우 기자

법장스님 선거대책위

불교신문 종립요청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법장스님 선거대책위원회는 종단기관인 불교신문 사장 영담스님의 선거준비와 불교신문의 일부 보도에 대한 정보요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무원장 권한대행, 불교신문 사장에게 전달했다.

법장스님 선거대책위는 "영담스님이 종하스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준비를 요하는 주요 총무원으로서의 맞지 않고, 6일 종하스님 추대식 관련기사(인터넷판)도 7개 본사(조계사 제외) 주지가 참석한 것을 11개 본사대표가 참석했다고 보도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쇄대체에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김영민

전통사찰 경내지 강제수용 불가

제7회 선우논강 안내

선우논강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법을 토론하고 절차탁마하는 공부모임입니다. 문중과 본사, 비구, 비구니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불제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한국불교의 수행, 교학, 포교 등 교단 발전을 위한 열린 토론과 수행의 마당입니다.

이번 제7회 선우논강 주제는 "간화선과 위빠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입니다. 근래 한국불교계는 전통적인 간화선 수행방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남방불교의 수행방법인 위빠사나의 체험과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말미암은 수행방법에 대한 혼란을 극복하고, 올바른 수행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논강에서는 간화선과 위빠사나에 대한 비교 검토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선우논강의 공부모임은 한국불교의 발전과 수행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제방 스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47(2003)년 2월 25일(화) 저녁 6시 - 9시
- 장 소 : 지리산 실상사
- 주 제 : "간화선과 위빠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
- 기조강연 : 혜국스님 (제주 남국선원)
- 발 제 : 각목스님 (초기불전연구원)
- 대표토론 : 정화스님, 인경스님(보조사상연구원)
- 일 정 : 오후 4시 접수. 오후 5시30분 공양. 오후 6시30분 예불 및 논강
- 대 상 : 조계종 비구, 비구니
- 참 가 비 : 2만원
- 준 비 물 : 대가사
- 문 의 : 선우논강 사무실 (02-3676-4060), 실상사 (063-636-3031)

※ 선우논강 후원계좌 : 우체국 704296-02-018502 (예금주 장영기)

선우논강 대중일동
선우논강 실행선우 대표 철오 스님

